



수산 · 환경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orea Maritime Institute)

(137-851)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-4 Tel. 02) 2105-2740 / Fax. 02) 2105-2759

목 차 : 지구촌 이슈 / 주요뉴스와 분석 / 간추린 지구촌 소식



지구촌 이슈

2006년도 상반기 WTO/DDA 수산보조금 협상 주요 이슈별 동향

■ WTO/DDA 규범 의장안 7월말 제출 예정

- WTO/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2006년 상반기 동안에 4차례 개최되었고 각 회원국들은 14건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음
 - 규범의장은 2006년 6월까지 제출된 회원국들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7월 말에 의장안을 제출할 예정임
- 제출될 의장안은 포괄적 금지(Top-down) 및 개별적 금지(Bottom-up), 금지/허용보조금 종류, 개도국 특별대우 등 수산보조금 협상 핵심 주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것임

■ 포괄적 금지와 개별적 금지

- 브라질을 포함한 피시프렌즈 그룹은 몇 개의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산보조금을 철폐하자고 주장함
 - 반면에 우리나라, 일본, 대만, EU, 노르웨이, 캐나다 등은 수산자원 고갈을 직접적으로 야기시키는 과잉어획능력과 연관된 보조금만을 금지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음
- 현재까지 어획능력을 증가시키는 보조금을 금지시키자는 데에는 거의 합의가 되었으나, 피시프렌즈 그룹은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보조금, 즉, 어업비용을 절감시키는 보조금도 금지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음

- 그러나 우리나라, 일본, 대만 등은 어업비용을 절감 시키는 보조금은 자원고갈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음으로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임

■ 양식업과 가공산업 포함 여부

- 뉴질랜드, 미국 등은 규율대상 범위에 잡는 어업 및 가공, 유통, 판매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보조금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함
 - 그러나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규율범위를 잡는 어업에 한정시키자고 주장함
- 또한 브라질의 경우 일반 기반시설도 규율대상 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으나
 -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현행 보조금 협정에 따라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

■ 소규모 어업 및 전통어업

- 뉴질랜드는 소규모/전통어업을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 특별대우(S&D) 일환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
 - 반면, 우리나라, 일본, 대만, 캐나다 등은 소규모 어업과 전통어업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
 - EU의 경우 전통어업은 허용보조금으로서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

■ 개도국 특별대우에서 선진 수산개도국 제외

-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부여하는데 있어 우리나라, 일본, 대만, 캐나다, EU, 미국 등은 선진 수산개도국을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임
 - 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선진 수산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가 부여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

【 주요 이슈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 】

이슈		주요 회원국의 입장
규율 범위	잡는 어업	대다수의 국가들
	양식 어업 포함	뉴질랜드, 브라질
	유통 및 가공 포함	뉴질랜드, 미국
금지보조금	과잉어획능력연관 보조금	한국, 일본, 대만, EC, 노르웨이, 캐나다
	과잉어획연관 보조금	FFG 국가 및 멕시코
소규모어업/ 전통어업	소규모 어업	한국, 일본, 대만, 캐나다: 모든 회원국에 적용 뉴질랜드, 솔로몬 제도: 개도국에만 부여
	전통어업	한국, 일본, 대만, EC: 모든 회원국에 적용 뉴질랜드, 인도: 개도국에만 부여
개도국 S&D	선진 수산 개도국 구분	한국, 일본, 대만, 캐나다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노르웨이, 뉴질랜드, EC, 미국
	선진 수산 개도국 미구분	인도, 중국

■ 의장안 제출 후 협상 본격화 전망

- 7월말 의장안이 협상 테이블에 제출된다고 해도 의장안 대로 합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7월 이후 협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
 - 홍콩각료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과잉어획능력과 연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, 과잉어획과 연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
- 더욱이 수산보조금을 규율하는데 있어서는 Top-down 방식보다는 Bottom-up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

<조정희, jcho5901@kmi.re.kr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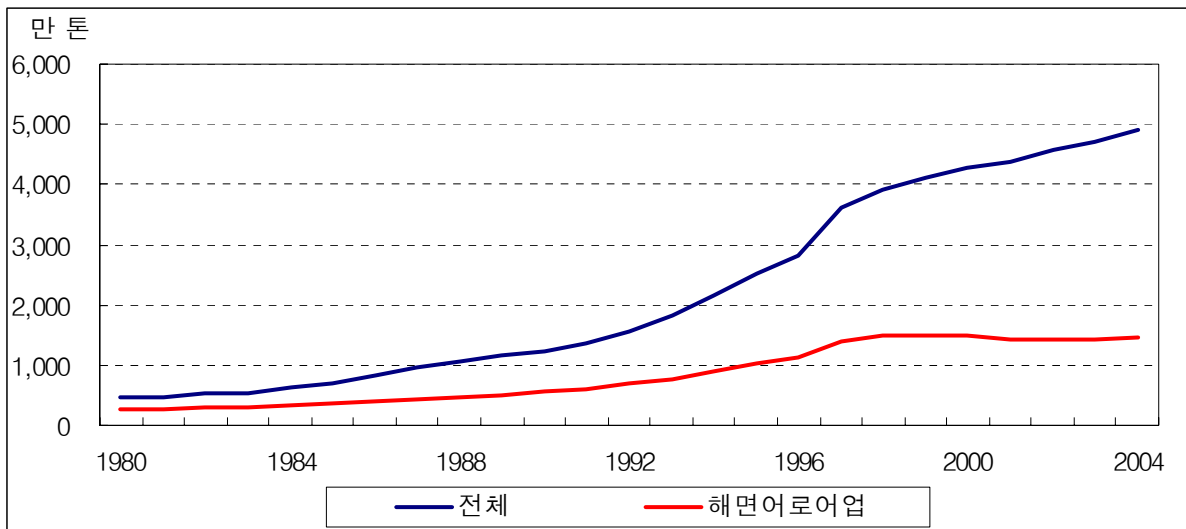


주요뉴스와 분석

■ 중국, 지속가능한 어업 위해 어업자원보호대책 강화

- 최근 중국의 심각한 어업자원 감소문제로 중국 농업부 어업국 리젠화(李健華)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하여 어업자원보호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
 - 중국의 해면어로어업은 1999년을 기점으로 정체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2004년까지 어획량이 1,450만 톤 수준을 유지하였음
 - 반면 전체 어업생산량에서 해면어로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62.4%에서 2004년에 29.4%로 하락하였음

【 중국의 어업생산량 추이 】



자료 : 중국어업통계연감

- 리젠화에 따르면 중국은 기존의 금어제와 수산자원보호구제도를 통하여 주요 어업 자원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고, 증양식방법으로 어업자원을 적극적으로 회복시키며
 - 어획할당제와 조업허가증제도 등의 자원관리제도를 강화하여 조업행위를 규제하고 감척 및 전업제도를 실시하여 어획능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어업구조를 조정할 계획임
 - 향후 중국은 해면어업의 하계휴어와 창장(長江)금어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타 수역에 대해서도 금어제를 실시하며, 또한 치어자원보호구를 건립하여 수산

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촉진할 예정임

- 중국의 이러한 어업자원보호대책과 지속가능한 어업발전 계획은 현재 중국의 자원 상태가 좋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자원감소로 인해 자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
- 우리나라 수입 수산물 중 약 40%가 중국산으로, 중국산 수산물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급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
 -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어업자원감소는 향후 중국의 자국내 수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

<이은화, yhli19@kmi.re.kr>

■ 큐슈지역 수산주무과장협의회, '서해·동지나해 자원관리기구' 창설 요청

- 미나토신문 보도에 따르면 큐슈(九州) 각 현(縣) 수산주무과장협의회는 수산청에 큐슈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음
 - 요청서의 내용은 한일·중일어업협정 하의 자원관리대책, 신중일어업협정관련대책 특별기금사업 실시기간 연장 등 총 17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
- 그 중 한일·중일 잠정수역 등에서의 보존·관리조치 조기 확립, 3국간 “서해·동지나해 자원관리기구(가칭)” 창설 및 지역어업인의 의견을 존중한 외국선 조업조건 재평가와 단속·감시체제의 강화를 요청하였으며
 - 또한 IUU 선박 대책, 대중형선망과 연안어업간 조정에 있어 정부 참여, 아리아케해(有明海) 및 야츠시로해(八代海)의 재생, 중국측의 수입종묘 방역대책 강화 등도 포함하고 있음
- 한·중·일 3국의 주변수역은 양자간 어업협정 체결을 통해 완전한 EEZ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, 각국은 자국 인근해역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노력을 모색 중에 있음
 - 우리나라는 국내 EEZ에 있어 지속가능한 어업을 영위하고자 불법어업 단속 강화, TAC 설정, 바다목장 조성 등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며, 일부에서는 민간주도의 협력도 관찰되고 있음
-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장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, 일본과의 공조를 통한 공동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음

- 우리나라 EEZ내 자원수준(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(2005) 참조)은 “낮은 영양단계 수준이며, 저조한 어업생산 수준으로 양적으로 유사한 70년대 중반에 비해 질적으로 저하된 상태”로 평가되고 있어 3국간 어업협력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
-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어장을 공유하고 있는 큐슈 각 지자체 수산주무과장협의회에서 3국간 공동자원관리기구의 창설을 요청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

<임경희, imkh@kmi.re.kr>

■ 미국, 캄보디아 산 메기에 반덤핑관세 부과

- 일부 저개발 국가들은 수산물을 수입·가공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경향이 있음
 -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의 한 회사는 베트남 산 메기(catsish)를 수입하여 자국에서 필렛 형태로 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
 - 미국 정부는 원산지가 캄보디아가 아니라고 비난하면서 캄보디아 회사에 64%의 관세를 부과했고 허위 표시된 것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임
 - 베트남도 2003년도에 미국에 37~64%의 반덤핑관세를 지급했고 이로 인해 미국으로의 수출이 4%정도 감소하였음
- 미국은 과거 2002년에 베트남과 양자무역협정(BTA) 체결 후 메기(catfish)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여 미시시피주 등의 양식업자들이 큰 손해를 입은바 있음
 - 이에 미 양식업자들은 연방무역위원회를 통해 메기에 대한 명칭을 catfish에서 베트남현지 이름인 basa로 변경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통과시켰음
 - 이처럼 미국은 여러 나라와 협상을 통해 자유무역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산업의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장벽을 실시하고 있음
 - 명칭 변경으로 수입 수요를 감소시키려 하고 수입규제의 한 방안인 반덤핑관세를 통해 자국 생산 가격과 수입 가격 차이를 보전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
 - 이에 우리는 FTA 협상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
- 그리고 미국은 어류 필렛의 원산지 규정에서 필렛 공정 자체가 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류 포획국에 원산지를 부여하고 있음
 - 아직까지 WTO의 통일원산지 규정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시점에서 각국은

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원산지 규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

-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이 존재하므로 우리나라 역시 FTA나 각 협상 시 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규정이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협상추진 필요함

<강형덕, thymos@kmi.re.kr>

■ 미국 서부지역, 어려워지는 연어 산업 대책마련에 주목

- 미국 워싱턴 주 엔젤레스 하버 어항(Port Angeles Harbour)의 연어 양식장에서 적조 발생 생물인 무해성 헤테로시그마(Heterosigma)가 발생하여 약 10만 마리의 대서양연어가 폐죽음을 당했음
 - 헤테로시그마는 양식어류에게 매우 치명적인 적조발생 균으로써, 최근 무더위로 인한 수온 상승과 브리티쉬 콜롬비아의 프레저 강(Fraser River)에서 유입된 빙하로 인해 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
- 연어양식업자들은 연어에 대한 사료 절식을 시작하였으며, 적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심해의 냉수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음
 - 또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조로 죽은 연어를 양식장 밖으로 건져 올리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음
- 이번 적조로 인해 아메리칸 씨푸드사(American Seafoods)의 엔젤레스항 연어양식장 및 싸이프러스 섬 양식장의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는데, 약 100만 파운드(200만 달러)의 연어가 죽은 것으로 추측됨
- 현재 오리건 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가물과 연어 자원감소에 이어 워싱턴 주 엔젤레스 하버 어항의 적조발생이 겹쳐 미국 서부 연어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
 - 이에 대해 미국 중소기업청(Small Business Administration)은 연어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남서부 오리건 주와 캘리포니아 어업인들에게 최대 32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며, 북서부 지역에서는 적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
 - 특히 상무성에서는 남서부 지역의 연어산업에 대해 “재난(disaster)”상태라고 선언한 만큼 향후 미 정부의 어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
 - 국내에서도 매년 여름마다 적조 발생으로 인한 양식어업인의 피해가 발생하며, 향후 국내에서도 어업 자원 감소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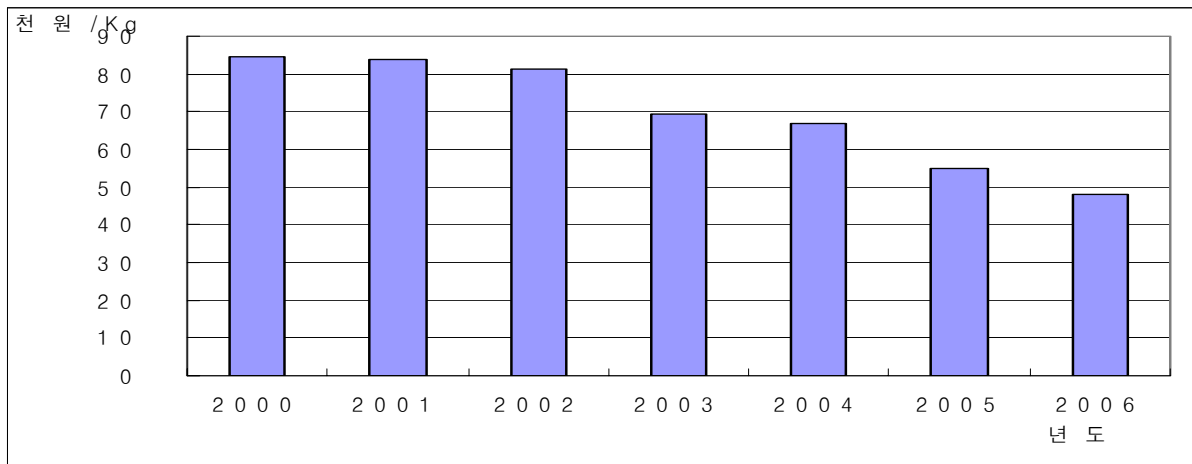
책 마련 시 미국의 사례는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

<정명화, jmh@kmi.re.kr>

■ 오스트레일리아, 중국 수출 위해 전복 양식 확대

- 오스트레일리아 Bight Abalone사는 전복 양식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1억 AUD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함
 - 현재 양식산 전복의 생산량은 75톤이나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18개월 내에 200톤 정도가 생산될 것이라고 함
 - 새로 시설된 양식장에서는 내년 초에 처음으로 전복이 생산될 예정임

【 전복의 위판 가격 】



자료 : 수협중앙회

주 : 2006년도 위판 가격은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가격임

- 이 회사에서는 생산된 양식산 전복을 전량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으로
 - 현재 중국은 최대 전복 수입국이며 킬로그램당 시장가격은 25 유로부터 70 유로 사이임
 - 더욱이 수산물 수출업체 관계자는 중국의 수산물 수입 관세가 낮아지면 중국의 수산물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함
- 최근 중국도 국내 수산물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, 각국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 기업들은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
 -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양식산 전복 생산량을 증가시켜 중국으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음

- 우리나라의 경우, 현재 대 중국 수산물 교역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이나, 중국내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볼 때 대중국 수산물 수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음
 - 특히, 양식산 전복의 경우 국내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많아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양식업자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
 - 우리나라의 2006년 1월 위판가격은 킬로그램당 58,805원이었으나 이는 작년 1월에 비해 약 22%나 감소한 것임
 - 따라서 과잉 생산된 전복을 포함하여 가격 등 경제성을 검토하여 국내시장만이 아닌 중국시장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

<조정희, jcho5901@kmi.re.kr>



간추린 지구촌 소식

■ 중국, 새우반덤핑제도의 피해로 미국상무부 제소

- 중국은 미국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중국산 새우반덤핑제도에 대해 계속 불만을 품어왔는데, 지난 6월 중순에 미국국제무역법원에 미국상무부를 제소하였음

■ 중국, 내수면 양식용 어분 소비량 10~13만 톤으로 예상

- 올해 중국의 내수면 양식용 어분 소비량은 10~13만 톤으로 예상되는데, 지역별로 보면 동베이(東北)지역은 2만 2천~3만 톤, 화베이(華北)지역은 1만 5천~2만 톤, 수베이(蘇北)지역은 5만 8천~7만 톤, 화남(華南)지역은 2만 톤임

■ 중국, 수산물선도보존기술 개발

- 중국은 남극어류가 저온에서 생명력을 보존할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수산물선도보존기술을 개발하였는데, 이 기술을 이용하여 냉동한 미꾸라지, 붕어 등을 다시 해동하면 활어상태로 회복할 수 있음

■ 허이룽장성, 러시아로 수산종묘 수출

- 지난 15일에 허이룽장(黑龍江)성은 민물 연어, 산천어, 화련어 등 수산종묘를 러시아로 600만 마리 수출하였음

■ 냉동다랑어 가격, 자원규제의 여파로 급등

- 최근 자원고갈 방지를 목적으로 다랑어 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조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면서 다랑어 가격이 급등하였음
 - 도쿄(東京)시장의 도매가격이 과거 5개월 평균가격의 20% 이상 상승, 냉동다랑어 가격이 단위당(1kg) 2천 엔에 육박하고 있음

■ 러시아 모란새우 금어로 일본시장 내 공급 감소 우려

- 러시아 연해주 규제국이 자원보호, 불법어업 대책을 목적으로 6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일본에서 생식새우로 인기가 높은 모란새우의 연해주 해역내 조업을 금지하였음
 - 일본 수입품 중에서도 러시아산의 비중이 특히 높은 모란새우는 초밥재료, 횡감으로 인기가 높는데, 이번 금어조치가 일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며 그 중 새우의 공급이 크게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

■ 베트남기업, 메기기름으로 디젤연료 생산 예정

- 베트남 안산수산물수입(주)이 자국내 디젤엔진용으로 이용하고자 메기기름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생산을 계획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려짐
 - 연간 약 1천ℓ 규모를 생산하는 연료공장을 남부메콩델타에 건설할 계획으로, 메기기름 1kg에서 약 1ℓ의 연료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짐

■ 베트남, 오래된 어선 인공어초로 활용

- 베트남은 10년 동안 매년 1,000척 정도의 낡고 쓸모없는 어선을 인공어초로 이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
 - 이는 베트남 연근해의 과잉 어선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과잉어획으로 인해 자원 감소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함임

■ 인도 구자라트(Gujarat)지역, 많은 어종 고갈

- 내륙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로 인해 구자라트(Gujarat), 바룻츠(Bharch), 발사드(Valsad), 나사리(Navsari) 등에서 20개종 이상의 어종이 사라졌음
 - 이들 어종에는 돔(thread fin), 인도 연어(indian salmon), 게(grab), 경피어류(leather jacket), 메기(catfish), 물천구(bombay duck), 정어리(hilsa) 등이 포함되었음

■ 심해어업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말레이시아

-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해어업에 노력을 기울이고

있다고 말하였음

- 이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가공 산업을 증대시키고 심해어종에 대한 판매와 유통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음

■ 태국, 어업 투자 위해 미얀마 남쪽 지역 주시

- 태국 국가 경제 사회 자문 위원회는 미얀마 남쪽의 다웨이(Dawei)와 미에익(Myek)지역에 대한 어업 투자가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음
 - 이 지역은 태국 국경과 15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투자와 발전을 위해 개방되어 있는 지역임

■ 러시아, 농업개발프로젝트에 수산양식업 포함 검토

- 러시아 메베데브 부수상(First Vice Prime Minister Dmitry Medvedev)은 사할린 지역 수산 양식시설을 순회하면서 올 9월부터 전역에서 시행되는 농업개발프로젝트(agro-industrial development project)에 수산 양식업의 포함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음
 - 구체적으로 양식업자가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며, 현대식 가공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용한도(credit line)를 제공해 주는 것 등이 포함됨

■ 한국산 생굴 먹은 뉴질랜드인 배탈, 뉴질랜드 식품안전청 한국산 굴 수입 중지

- 뉴질랜드 식품안전청은 이든파크 럭비 경비장의 식당에서 한국산 굴이 들어간 요리를 먹은 352명이 배탈이 났다고 밝히면서 한국산 굴의 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였음
 - 이번 사태 조사 결과 조리업체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오염된 굴을 조리하였다고 밝힘
 - 이에 따라 한국산 굴을 취급하는 모든 뉴질랜드의 유통상인들은 수입상에게 굴을 다시 반환하였으며,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굴 생산 및 생산 과정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신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수출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
 - 또한 뉴질랜드 정부는 수입되는 모든 패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속에 수산물 수입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

■ 호주, 링컨 어항 고등어 어업 확대키로

- 호주 남부의 링컨 어항에서 고등어어업이 확대될 것이며, 현재 5척을 보유하고 있는 어선을 늘일 계획이라고 호주 어업관리국(Australian Fishing Management Authority, AFMA)이 밝혔음
 - 호주 남부의 타즈매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고등어어업은 최근 양육량이 매우 증가하였는데, 이는 남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다랑어 축양에 고등어가 사료로 이용되기 때문임

■ 미얀마 수산업센터 부산에 개소

- 미얀마는 한국내 새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부산에 미얀마 수산업센터(Myanmar Fishery Centre)를 개소하였음
 - 미얀마 수산물 수출 업계는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커짐에 따라 미얀마 수산물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고, 향후 새우뿐만 아니라 어류도 수출할 예정이라고 함

■ 베트남, 양식사료 공장 증가 추세

- 베트남은 양식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 양식사료 공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
 - 최근에는 5헥타르에 이르는 대지에 Uni-Prsident Vitetnam사가 사료공장을 건설하였는데, 100만 톤 정도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함